



# 위험 · 사람 그리고 고소작업 관리를 통해 안전한 현장 만들어

- 대림산업 펜타포트 신축공사 현장 -

취재 | 최종덕 기자



### 위험요소 사전제거, 펜타포트의 안전

대림산업하면 생각나는 안전관리 기법이 있다. 바로 SORA이다. 이는 건설현장 최초로 대림산업이 개발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대림산업의 안전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곳 펜타포트 현장에도 SORA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이를 기반으로 여타 다른 방법의 안전활동도 병행하고 있었다. 그 중 지적활동 참여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가 담당구역을 정해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여기서 도출된 개선 사항은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전 직원과 협력업체 소장이 참석한 안전회의를 통해 공유한다. 그리고 전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단 한 건의 불안정한 상태가 현장에 방치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

뿐만 아니다.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들은 1일 3회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단 하루도 빠지는 경우가 없다. 안전조회 시 또는 근로자 안전교육에는 근로자들의 의식 개혁에 초점을 맞춰 내실화를 극대화시키고, 장비 반입 시 작업계획서 작성을 통해 만약에 있을 장비에서의 위험성을 Zero화 한다. 이처럼 사소한 하나에도 지나치는 법이 없는 펜타포트의 안전은 촘촘히 짜인 그물망처럼 물 쉼 틈이 없다.

### 인력관리를 통해 무재해 현장 이끌어

하루 출역인원이 250여명에 다다른 펜타포트 현장에서는 사전 위험요소제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력관리이다. 모든 안전사고를 보면 사람에게 의해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볼 때 인력관리는 곧 무재해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펜타포트 현장에서 도입한 것이 혈관인식 출력시스템이다. 신규채용자 건강검진시 확인된 신체의 혈관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안전교육 여부에서부터 불안전 작업 이력, 아차사고 이력까지 관리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위험 요소조건자를 관리하고 있다.

### 재래형 재해, 추락이 없는 현장

건설현장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유형이 추락재해다. 시공 중에 불안정하게 도출되어 있는 개구부 그리고 추락의 위험은 준공 그날까지 매순간 주의해야 하는 위험요소이다. 특히 추락재해가 발생했다 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재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추락재해 하나만큼은 건설 현장에서 잡아야 할 위험요소이다.

이곳에서도 추락에 대한 위험은 높다. 그래서 펜타포트 현장은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특별한 안전시설들을 마련해 놓았다. 먼저 바닥 개구부 모두는 EX-Metal망을 설치하고, 안전난간대는 브라켓형을 사용한다. 엘리베이터 입구 안전난간대 경첩과 시건장치를 이용한 여닫이 타입으로 근로자가 임의 해제 및 쓰레기 무단 투척 등이 불가능하도록 했고, 인상 작업동안 난간대 미설치 방지상태가 없도록 했다.

그리고 조립하는 보 거푸집에 생명줄 브라켓을 설치하고, 보 하부 Support 설치 및 보 상부 작업 시 생명줄을 연결토록 하는 것은 이곳 현장의 필수 사항이다.

2007년 10월에 아산 배방택지개발 사업지구 1블럭과 3블럭에 들어서는 펜타포트는 천안 최초의 66층 주상복합 건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장이다. 4개 건설사가 합작하여 천안의 명품으로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펜타포트는 1블럭 41층과 45층, 3블럭은 66층 주상복합 건물로 구성된다.

1블럭 현장은 41층과 45층이라는 초고층 현장으로 대단위 건설현장이다. 하루 출역인원이 250여명에 이를 만큼 규모에 있어서도 손가락을 꼽는 현장이다. 이처럼 대단위 초고층 현장에서 자칫 인력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현장관리에 빈틈이 생기더라도 한다면 중대재해 발생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곳에는 남다른 안전관리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안전한 작업장 건설을 위해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이들과 함께 안전일과를 같이 해 보았다.

이처럼 철저한 개구부 관리와 고소 장소에서의 추락 및 낙하물 재해 관리를 통해 천안의 명물로 탄생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무재해 현장, 안전한 현장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오늘도 무사고를 다짐하며 현장을 나서는 23명의 대림산업 사람들은 인간존중의 가치창조를 실현하기 위한 다짐과 함께 1년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 ☺



###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최정석 현장소장

제가 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안전경영을 위한 기준으로 기본과 원칙을 말합니다. 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에 쫓겨 안전을 생략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들이 사고의 원인인데 안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본과 안전작업의 원칙을 지킨다면 안전사고는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SORA안전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작업을 공유하고 선 안전조치 후 작업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현장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능동적인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화장실, 휴게실, 안전통로 등 근로자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공사현장 같지 않게 깨끗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안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민 해보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항상 최적의 안전이 유지될 것이고 항상 안전한 현장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과 원칙의 준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 현장의 안전을 위해 휴머니즘과 감성안전이 중요합니다.



김용호 안전차장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에는 “휴머니즘과 감성안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수많은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다보면 고충과 불편한 점을 듣게 되고 이는 바로 시정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협력사와 갑과 을의 관계 또는 수직관계의 상명하복 지시전달과 통제의 대화가 있다면 근로자들이 필요한 사항을 접할 수 없을뿐더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마음을 열어 놓고 진솔한 나눔이 있다면 현장의 안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관리자를 이해해주고, 관리자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협조하고 함께하는 올바른 안전활동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이렇듯 안전에는 휴머니즘과 감성안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중요시 여기는 것이 Communication인 것도 이 때문이고,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것도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안전뿐만 아니라 현장을 운영하려면 품질이나 시공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휴머니즘이 아닐까요?